

해석인류학과 생애사

제주사람들의 삶을 표현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의 모색*

유 철 인**

I. 글을 시작하면서

문화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에 대한 한 논의(Clifford & Marcus 1986)는 역사와 정치경제학에 관심을 두면서, 문화를 잘 짜여진 구조물로 보는 전통적인 시각은 연구대상자들의 다양한 삶의 표현들을 서술하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작용하는 힘에 대한 문제, 나아가서 문화를 서술하는 데 작용하는 힘의 논리가 무시되었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이는 인류학자들이 역사적 산물인 문화를 조사 당시 상황에 국한한 “민족지적 현재”(ethnographic present)의 그림으로 그려왔고, 연구자의 입장에서 “다름”만을 강조하기 위해 너무 객관적인 정형화만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문화기술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최근 미국문화인류학의 “해석”에 대한 고조된 관심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까지 서구의 사회과학을 지배했던 실체(reality)에 대한 범칙을 찾는 실증주의적 시각에서 인류학자는 “전지전능한 참여관찰자”가 되어 문화를 찾아내어 보고 기술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Karp & Kendall 1982:251, Kondo 1986:84). 그러나 인류학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결국 모든 인간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하는 다른 사람과 현상에 대한 이해와 마찬가지로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Rabinow & Sullivan 1979), 실체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이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실험적이라 할 수 있는 논저들(예를 들면, Crapanzano 1980)이 나오기 시작하

* 본 논문은 “제주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위한 이론과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제주문화」 제 4호(1990)에 발표된 것을 수정 확대한 것이다.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인류학 전공)

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국문화인류학의 새로운 움직임이 제주도 문화에 대한 연구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제주지역의 모든 학문 전공자들은 그들의 연구영역에 상관없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제주문화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듯 모두가 제주문화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갖고 있다는 사실은 제주도에 대한 깊은 애정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만을 강조하고 실제로 어떠한다는 것은 도서환경이라는 틀로, 그리고 전통의 계승이라는 구호적 차원으로 설명하려는 매우 비슷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유철인 1985). 이러한 경향이 최근 연구(이기욱 1989, 양영웅 외 1990)에서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은 제주문화를 바라보는 지금까지의 이론적 틀과 방법론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제주문화를 바라보는 지금까지의 인식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현재의 우리들의 삶을 보다 더 잘 표현하기 위한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틀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II. 문화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와 제주문화연구

인류학에서 말하는 문화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문화의 의미보다 폭이 넓은 것으로, “특정 인간집단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생활양식의 총체”를 가리킨다. 인류학에서 문화라는 개념의 사용은 서로 다른 인간집단들 간에 나타나는 상이한 삶을 표현하기 위한 요술지팡이와 같은 것이며, 인간행동에 대해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라 하겠다. 또한 전통적으로 인류학자들은 문화를 객관적으로 찾아내어 기술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그들이 연구한 인간집단을 “일반화된 제 3자”라는 용어로 지칭하면서, 연구대상자들이 추상적인 문화법칙에 따라 그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Sass 1986:52, 54).

문화에 대한 인류학자들의 생각은 인류학 이론의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바뀌어 왔는데, 전통적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문화는 특정한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에 적응하고 있다. 둘째, 한 사회의 문화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무작위로 또는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전체 또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셋째, 문화는 항상 변한다.

제주문화를 설명하는 지금까지의 이론적 틀은 문화의 전통적인 견해들 중 “문화는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라는 데서 출발한다. 도서성에 대한 적응 방식으로서의 도서문화의 관점(이기욱 1989)은 환경결정론적 시각이거나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생태학적 설명이거나간에 모두다 위에서 살펴본 문화에 대한 첫번째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제주문화를 설명하는 두번째 틀이라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전통(고창훈 1984)이니 제주정신의 강조 등의 여러가지 이야기들에 깔려 있는 것 역시 문화는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제주문화를 설명하는 지배적 시각임은 다음의 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 최초의 시도였던 문화 철학적, 문화 비판적 시각에 입각하여 제주문화의 정체를 규명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를 변경하게 되었고 그래서 논고의 전개를 인류학적인 방법 특히 생태인류학의 방법에 의존하고자 하였다. 원래의 시도를 변경하게 된 이유로는 제주문화적 특성이 환경과 사회적 요인의 상호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결론에 전 연구원들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양영웅 외 1990:11).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주문화를 설명하는 두가지 기본 틀의 차이는 무엇인가? 전통생활양식은 보다 섬이라는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이 중요한 과제였다. 그후 감귤이라는 현금작물의 소개와 중앙으로부터 시작된 관광산업개발에 따른 “발동사적인 체제에서 바로 산업화 체제로 건너뛰는(조례정 1985)” 제주사회의 변환 속에서 살고 있는 현재의 제주사람들의 삶은 사회적 환경이라 할 수 있는 “육지”로 대표되는 사회변동에 대한 적응방식으로 제주적인 것을 찾아 계승하자(유철인 1984, 1986)라는 구조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Ⅲ. 흔들리는 문화의 개념 : 새로운 견해들

최근의 미국문화인류학의 경향을 나름대로 정리하면, 첫째, 문화적 의미를 해석하고 사용하는 원주민(내부자)의 입장에서 그 의미의 다양성을 해석하려는 연구와, 둘째, 실제 그 의미가 사용되는 행동과 맥락에 초점을 두어 실체가 항상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입장의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지조사에서의 인류학자와 연구대상자간의 상호작용과 그 결과로 나오는 다른 문화에 대한 묘사(representation)의 과정에서 인류학자들의 자기자신의 재발견에 초점을 두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세가지 경향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 관계를 짓고 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여러 갈래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Geertz(1983)는 최근의 문화나 사회생활을 연구하는 방식을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사회생활을 하나의 경기(game)로 보는 시각인데, 이는 인간행위를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실천 또는 전략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연극으로 보는 시각은 인간행위를 공연으로 본다. 이러한 시각은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나 “나다움”(개인)이나 사회 모두가 항상 재구성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셋째, 사회생활이나 문화 현상을 “그 뜻을 찾아내야 할 것”(text)으로 보는 시각은 모든 행위를 의미의 고착화로 파악하여 인류학의 연구작업을 “그 뜻을 찾아내야 할 것”으로부터 그 뜻을 찾는 해석의 작업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세 가지의 사회생활에 대한 비유는 모두 다 문화를 다양한 것들의 역동적인 경쟁의 결과로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문화를 주어진 것으로 고정화하는 전통적인 시각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즉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한 사회의 전형적인 특징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류 사람들의 다양한 삶이 한데 어우러지고 상호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항상 새롭게 형성되는 문화의 역동적인 과정을 그려내는 것이다.

문화를 “그 뜻을 찾아내야 할 것”으로 보는 입장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해하고 설명한다는 사실은 결국 해석의 작업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는 오랫동안 사회과학계의 주류를 형성해온 실증주의의 입장과는 대비되는 인식방법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한다는 사실은 곧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설명하는 과정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설명은 원인과 결과에 관한 법칙을 찾아내는 것(실증주의 관점에서의 설명)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 행동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또한 동시에 사람들은 행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무언가에 관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그 뜻을 찾아내야 할 것”의 의미는 그 자체에 내재해 있지 않고, 특정 사회에서 그것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코이즈디 1987:194-195). 이럴 때 인류학자의 작업은 행동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쓴 “그 뜻을 읽어야 할 것”을 스스로 어떻게 읽고 파악하는 가를 알아내는 일이다. 이처럼 행동한 사람들의 이해를 이해하고 행동한 사람들의 해석을 해석하는 이중의 작업이 해석인류학에서의 “해석”이다.

문화를 “그 뜻을 찾아내야 할 것”으로 파악하는 해석인류학자들은 그 대상을 주로 의례, 신화, 우주관 등에 나타나는 상징에 두고, 또한 일상에 나타나는 상징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때 의미가 나타나는 상황을 살펴보면 (Keesing 1987:161-162), 문화를 읽고 쓰는 작업이 남녀노소에 따라 그리고 문화를 잘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따라서 문화는 의미화 작업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정치경제학적인 상황에 따라 유리한 사람들에게 의해 신화로 만들어져 하나의 이데올로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의미가 나타나는 상황을 제대로 서술할 때 다양한 목소리들을 찾아낼 수 있고, 나아가 다양한 목소리들 중 어떤 것이 어떤 힘에 의해 주도적 담론(discourse, Foucault 1972)으로 나타나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푸코가 이야기 하는 담론이란 언어와 더불어 언어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인간관계를 일컬으며, 모든 형태와 범주의 문화적 활동 및 이런 활동에 대한 비판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문화적 실천의 기본을 말한다(장석만 1990: 209).

“그 뜻을 찾아내야 할 것”을 읽는(해석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인류학자들이 이중의 이해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통적인 문화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다름”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읽고 있다는 비판(Keesing 1987:162)을 생각할 때, 제주문화에 대한 연구가 제주문화를 읽고 해석할 때 너무 제주문화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류학자가 속하지 않는 다른 문화를 연구하는 일반적인 인류학 연구와는 달리 제주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제주문화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제주연구는 자문화중심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이기옥 1989:307-310). 제주사람들의 연구가 제주문화의 “다름”을 강조하는 데는 인류학자가 다른 문화의 “다름”을 강조하는데 작용한 힘과는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다. 제주문화를 “다름”으로 해석하는 경향은 소위 말하는 주변사회가 외부세계와의 광범위한 접촉 속에서 변환의 과정이 자기의 전통적인 정체감에 위협을 준다고 인식했을 때, 주변사회는 그들의 문화적 자주성만을 강조한다(Bianco 1980:153)는 사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주문화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주학자(지방 엘리트나 배운 사람)들이 해석하는 제주문화가 유일한 제주문화의 해석은 아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얼마만큼 제주사람들이 자기의 문화를 독특한 것으로 파악하는가를 살펴야 하는데 결국 매스컴의 영향을 비롯한 문화습득의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이러한 해석방식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겠다(유철인 1987).

IV. 새롭게 인식된 문화를 기술하는 방법의 예 : 생애사

문화를 역사적 정치경제학적 상황 속에서 여러 부류 사람들의 다양한 삶이 한데 어우러지고 상호대화를 하는 가운데 항상 새롭게 형성되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새로운 문화의 개념에 걸맞는 문화기술 방법에 대한 검토가 따라야 한다. 새로운 문화기술 방법들은 연구대상자들의 주관적인 경험을 이해하고, 역사적 정치경제학적 과정 속에서 그들이 처해 있는 위치를 검토

하고자 한다(Marcus & Fischer 1986:43-44). 다른 문화의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었으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속에서 재평가되어 사용되는 문화기술도구들로는 생애사(life history), 생애주기, 의례, 예술, 연회적 사건 등을 들 수 있다(Marcus & Fischer 1986:57). 이것들 중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은 생애사 방법이다.

생애사는 한 개인의 지나온 삶을 자신의 말로 이야기한 기록이다. 생애사는 행위자 또는 내부자의 관점에서 자기문화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애사를 통해 그들의 주관적인 경험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생애사 방법을 통해 지금까지 사회과학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여성을 비롯한 사회내의 소수집단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문화 인류학의 경우 사라진 아메리카 인디안의 문화를 한 개인의 생애를 통해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생애사 방법이 나왔고, 미국 사회학의 시카고 학파는 일탈행위가 일어나는 사회적 상황을 행위자의 어린시절을 통해 생생하게 그리기 위해 생애사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첫째, 생애사를 자료로서만 인식한 결과 다른 사회과학적인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어 기록된 생애에 대한 대표성, 수집된 자료에 대한 진실성 등을 문제 삼거나, 둘째, 생애사 자체가 이야기 해주는 것이 문학적인 가치나 연구의 목적이 되어 제시한 생애사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생애사가 대표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경험을 나타내는 기록도구로서 인식되던 것이, 최근 인류학내에서 경험(experience), 표현(expression), 그리고 묘사(representation)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는 가운데(Turner & Bruner 1986), Crapanzano(1980)의 투하미의 생애사를 비롯한 일련의 생애사연구(Langness & Frank 1981, Watson & Watson-Franke 1985, Angrosino 1989)에서는 생애사를 자기의 표현이나 주관적인 경험의 표현 그 자체로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생애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첫째, 생애사를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는 자료로서의 생애사와 “그 뜻을 읽어야 할 것” 혹은 “그 뜻을 찾아내야 할 것”으로서의 생애사를 구별하여, 자료로서의 가치보다는 자기의 표현이나 주관적인 경험의 표현 그 자체에 초점을 맞

춘 “그 뜻을 찾아내야 할 것”으로서 생애사를 파악한다. 둘째, 생애사 연구자는 수동적인 태도를 갖고 단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애사를 구성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므로 생애사 수집은 이야기하는 사람과 듣고 듣고 기록하는 연구자간의 협동 작업으로 인식하여, 수집된 생애사에 대한 해석도 다른 사람의 생애사를 끄집어 내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셋째, 생애사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나”(self), 삶, 경험에 대한 주관적 해석과 이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생애사에 대한 인식 변화는 바로 문화에 대한 생각이 “다름의 정형화”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목소리들 간의 지속적인 대화과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지나온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생애사의 본질은 상호관련된 세 가지 특성, 즉 이야기(narrativity), 시간(temporality), 그리고 주관성(subjectivity)이라 하겠다(유철인 1990). 생애사를 통해 나타나는 주관성은 자기의 경험을 의미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바, 그 의미화 과정은 생애적 시간 속에서 경험한 것을 기억해내고 자기자신한테 또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과정이다. 의미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경험되어 질 때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 돌이켜 보거나 이야기할 때 생겨나는 것이다. 삶 자체는 항상 현재 살고 있지만 생애적인 시간은 직선적인 시간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간의 고리인 것이다. 시간의 고리 속에서 삶은 특정의 시간적 공간적 현재에서 바라본 대로 이야기 되기 때문에(Kluckhohn 1945:157, Plath 1987:2), 자기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자기모습에 대한 위치 점검, 경험의 주관적 이해를 통한 자기모습에 대한 정당화, 그리고 자기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을 하게 된다(Plath 1980:9).

따라서 여러 부류의 제주사람들의 생애사를 수집하여, 제주사람들이 자기모습에 대한 점검, 나름대로의 정당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 등에 사용하는 사회문화적인 가정들과 원리들이 무엇인가를 생애사에서 찾아낼 때, 제주사람들의 문화가 특정의 시간적 공간적 현재에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나타

나는 가를 살펴 볼 수 있는 것이다.

V. 글을 맺으며 : 제주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담론

생애사를 통한 제주문화연구는 지금까지 도서성과 육지에 대한 적응으로만 살펴본 제주문화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문화에 대한 이론 중 어느 것이 올바른 견해인가라는 질문은 타당한 질문이 아니며, 따라서 각각의 문화에 대한 견해들은 나름대로 문화의 한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제주사람들의 생애사를 통한 실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놓으며, 이 논문에서는 제주사회에서의 나의 일상생활을 분석하여 지금까지 내가 해 온 제주연구(유철인 1984, 1986, 1987)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문화이론이 문화의 어떤 측면을 잘 보여줄 수 있는가로 이 논문을 맺으려 한다.

문화를 “여러가지 다양한 목소리들 간의 계속적인 대화과정”으로 바라볼 때, 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담론들을 찾아내는 작업은 다양한 삶을 표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제주사회에서 나타나는 주도적 담론들로는 우선 김석준이 1986년도에 개최되었던 좌담회(권인혁 외 1989:29-33)에서 제기했던 “자연주의와 산업주의의 갈등”, 그리고 제주도연구회가 제 1차 전국학술대회(제주도연구회 1985)에서 주제로 삼았던 “보존과 개발”등을 들 수 있다. 나의 생각으로는 제주문화의 실천의 기본이 되는 주도적 담론은 “대면(face-to-face) 혹은 면식사회와 산업사회의 공존” 그리고 “육지와 제주의 만남”이라 하겠다. 이러한 두가지—자연주의/산업주의, 보존/개발, 대면사회/산업사회, 육지/제주—의 주요 담론이 제주사람들의 일상에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피는 작업은 분명 문화를 자기완결적 구조를 가진 전형성으로 보는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목소리들의 경합관계로 보는 새로운 시각을 잘 보여줄 것이다.

대면사회의 속성이 나타나는 현장은 제주도에서 잘못된 것은 보통 육지사

람의 행동으로 돌리는 경향(석주명 1968:188, 현기영 1983:69, 135, 194)에서 찾을 수 있고, 제주출신들이 말조심을 매우 한다든지(이상철 1990), “아름으로” 일이 처리되는 것 등에서도 나타난다. 물론 한국사람의 사회적 성격 중에 친소의식(최재석 1976)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서 친하고 아는 사람끼리 공적인 일을 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한국사회 전체에서 폭넓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주사회는 섬이라는 사실로 어느 정도의 경계가 뚜렷하고 더군다나 인구규모의 성격등으로 더욱 더 대면사회의 특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산업사회의 체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나타나는 잘못을 외부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아름으로” 일이 되는 대면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 된다(유철인 1986:80).

제주사회가 일정한 규모의 인구수와 경계가 확실히 구분된 땅이라는 조건 하에서 나타나는 대면사회이지만 결코 폐쇄된 닫힌 사회일 수는 없다. 제주사회는 한국사회라는 틀 안에서 나아가 세계체제라는 역사적 정치경제학적 과정 속에서 움직이는 열린 사회이기 때문에 산업사회의 속성을 가질수 밖에 없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특성보다는 대면사회 혹은 전통사회의 속성이 더욱 강하게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는데, 약속과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점, 적절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 때에 받을 수 없고 친구간이라는 정해진 이사회에만 주택문제가 해결되는 것 등은 제주사회가 산업사회의 생활방식에 걸맞게 적응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육지사람, 외부인, 이주자, 대학교수, 인류학자로서의 나의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제주사회의 주도적인 담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사회에 대한 적용문제가 제주사람의 개인적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처리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제주와 육지의 만남은 한반도 혹은 중앙과 제주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가져왔으며 현재 어떤 모습인가에 관한 이야기다. 제주/육지의 구분은 제주사람들의 생활세계에 가장 큰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유철인 1984, 1987). 제주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조사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이 과연 제주사람인가에 관한 것인데, 결국 상황에 따라 다수에 의해 제주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상황 속에서 제주사람으로 인정되는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앞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면사회와 산업사회의 공존이 제주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한 제주사람의 의미가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속에서 일상생활에 대해 그의 미까지 기술하는 “심층묘사”(thick description, Geertz 1973)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심층묘사가 가능한 한 방법으로 나는 생애사 방법을 주장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창훈, 1984. 제주문화의 사회과학적 이해에 관한 연구: 공동체의식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1:19-45.
- 권인혁 외, 1989. 제주사회연구 공동과담: “살아있는 제주사회를 위하여”; 진단과 제언. 「제주사회연구」, 제주사회연구소 편, 창간호: 10-47.
- 석주명, 1968. 「제주도 수필」. 서울:보진재.
- 양영웅 외, 1990. 한국문화속의 제주지역문화의 특수성과 발전방향. 「사회발전연구」,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편, 제 6집: 9-46.
- 유철인, 1984. 일상생활과 도서성: 제주도 문화에 대한 인지인류학적 접근. 「제주도연구」, 제주도연구회 편, 제 1집: 119-144.
- _____, 1985. 서평: 제주도연구회 편, 제주도연구, 제 1집. 제대신보(8월 30일).
- _____, 1986. 제주사람들의 문화적 정체감: 주변사회에 있어서의 적응방식. 「탐라문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편, 제 5호: 71-93.
- _____, 1987. Tradition and cultural identity in Cheju island, Korea. 제109차 미국민족학회 (미국 텍사스주 산안토니오시, 4월 30일-5월 3일) 발표논문.
- _____, 1990. 생애사와 신세타령: 자료와 텍스트의 문제. 제22회 한국문화인류학회 전국대회(서울대학교, 11월 16일-17일) 발표논문.
- 이기욱, 1989. 제주도 문화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제21집: 295-340.
- 이상철, 1990. 개인면담.
- 장석만, 1990. 미셸 푸코의 담화분석과 종교학 연구. 「미셸푸코론」, 한상진 외 지음, 193-278쪽. 서울:한울.

- 제주도연구회 편, 1985. 「제주도연구」, 제 1집.
- 조혜경, 1985. 근대화에 따른 성격할 구조의 변화: 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 제 17회 한국문화인류학회 전국대회(한양대학교, 10월 18-19일) 발표논문.
- 최재석, 1976.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개문사.
- 코이즈미 준지, 1987. 해석인류학. 「문화물 보는 열다섯 이론」, 아야베 쓰네키 역음, 이종원 옮김, 189-203쪽. 서울:연간사랑.
- 현기영, 1983. 「변방에 우뚝는 새」. 서울:창작과비평사.
- Angrosino, Michael V., 1989. Documents of Interaction: Biography, Autobiography, and Life History in Social Science Perspective. Gainesville: University of Florida Press.
- Bianco, Carla, 1980. Ethnicism and culturology: The cultural identity of regional and immigrant groups. *Sociologia Ruralis* 20(3):151-164.
- Clifford, James & George E. Marcus, eds., 1986. Writing Culture: The Poetics and Politics of Ethnograph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rapanzano, Vincent, 1980. Tuhami: Portrait of a Morocca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oucault, Michel, 1972.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New York: Pantheon Books.
- Geertz, Clifford, 1973. Thick description: Toward an interpretive theory of culture. In his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pp. 3-30. New York: Basic Books.
- _____, 1983. Blurred genres: The refiguration of social thought. In his *Local Knowledge: Further Essays in Interpretive Anthropology*. pp. 19-35. New York: Basic Books.
- Karp, Ivan & Martha Kendall, 1982. Reflexivity in field work. In *Explaining Human Behavior: Consciousness, Human Action and Social Structure*. Paul F. Secord, ed. Beverly Hills: Sage.
- Keesing, Roger M., 1987. Anthropology as interpretive quest. *Current Anthropology* 28:161-176.
- Kluckhohn, Clyde, 1945. The personal document in anthropological science. In *The Use of Personal Documents in History, Anthropology, and Sociology*. Louis Gottschalk, Clyde Kluckhohn, and Robert Angell, eds. pp. 77-173.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Bulletin 53.
- Kondo, Dorinne, 1986. Dissolution and recognition of self: Implications for

- anthropological epistemology. *Cultural Anthropology* 1:74-88.
- Langness, Lewis L. and Gelya Frank, 1981. *Lives: An Anthropological Approach to Biography*. Novato, California: Chandler & Sharp.
- Marcus, George E. & Michael M.J. Fischer, 1986. *Anthropology as Cultural Critique: An Experimental Moment in the Human Scienc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lath, David W., 1980. *Long Engagements: Maturity in Modern Japa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87. Making experience come out right: Culture as biography. *Central Issues in Anthropology* 7:1-8.
- Rabinow, Paul & William M. Sullivan, 1979. The interpretive return: Emergence of an approach. *In Interpretive Social Science: A Reader*. Paul Rabinow & William M. Sullivan, ed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ass, Louis A., 1986. Anthropology's native problems. *Harper's Magazine* (May):49-75.
- Turner, Victor W. & Edward M. Bruner, eds., 1986. *The Anthropology of Experienc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Watson, Lawrence C., and Maria-Barbara Watson-Franke, 1985. *Interpreting Life Histories: An Anthropological Inquiry*. New Brunswick,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